

2부
문학을 통한 전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탐구



IV

네그리튀드의 미그리튀드 후예들:
샤일자 파텔의 『미그리튀드』와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레바람을 걷는 소년』

펠라 베나베드 Fella Benabed

밋지모크타르-안나바대학교 Badji Mokhtar-Annaba University

이주가 먼 과거로부터 내려온 아프리카인들의 속성인 반면 미그리튀드(Migritude)는 현대 작가들이 전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 행동주의를 가리킨다. 미그리튀드 작가들은 여성주의와 반제국주의의 관점으로 세계화 하에서 아프리카 이주자들이 살아가는 조건을 묘사한다. 나는 탈식민주의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샤일자 파텔(Shailja Patel)의 『미그리튀드(Migritude)』와 나디파 모하메드(Nadifa Mohamed)의 『모레바람을 걷는 소년(Black Mamba Boy)(2010)』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그리튀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 행동주의를 보여주고자 한다.

탈식민주의 텍스트 분석

이 글은 선정된 문학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 작성/제작의 맥락, 해석/수용의 맥락, 구조와 문체를 연구하는 텍스트 분석(Herlihy & Johnson, 7)에 의지한다. 이 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정된 문학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탈)식민 이주의 사회문화적·역사적·정치적 토대를 다루는 탈식민주의의 관점을 텍스트 분석에 수반되는 이론틀로 채택할 것이다. 정의상 탈식민주의는 “이주, 노예제, 억압, 저항, 표상, 차이, 인종, 젠더, 장소, 제국 유럽의 영향력 있는 지배 서사에 대한 대응”(Ashcroft et al., 2) 등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계화 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을 포괄한다. 젊은 세대의 아프로폴리탄(Afropolitan(African+ cosmopolitan)) 작가들로서 파텔과 모하메드는 이주, 차이, 저항이라는 탈식민적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빈번히 이주자를 경멸적으로 표상하는 제국적 담화를 다시 쓰려고 시도한다.

식민주의와 이주의 직접적 관계는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식민주의는 사람들과 노예, 또 계약노동자(indentured worker)의 이동을 증가시켰다. 식민주의 종식 이후 각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전 세계 이주민의 상당수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조국을 떠나 식민주의의 중심 국가들이었던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역식민화”(Bennett-Coverly 106-107)나 “식민주의의 부메랑”(Milfull 464)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이들 이주자들은 억압의 식민적 유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치적 결정에 대한 서구의 개입과 천연자원의 지속적 착취에 의해서도 초래되는 고난을 공유한다.

그 부리가 식민 역사로까지 뻗어 있는 세계화의 맥락에서 이주자의 상황은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며 주류로부터 주변화되기 때문이다. 이주자에 대한 인종화된 담화는 19세기의 백인 남성의 짐(White Man's Burden) 이데올로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식민화된/이주자 타자는 미개하여 동화될 수 없는 자들로 나타난다. 많은 호평을 받은 『오리엔탈리즘』(1978)에서 유명한 탈식민주의 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구의 응시가 나머지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타자화(Othering)”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상호 오해의 커다란 분열 속에서 현실이 다르게 인식되고 표현되며 경험되는 세계를”, ‘타자’가 자세히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도 거의 쏟지 않는 세계를 “갖게 되었다”(Sardar vii). 알고 있다는 허울은 종종 권력을 기반으로 “우리”와 “그들”의 이항대립을 낳는 스테레오타입에 의존한다.

때로 이주자들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 특정한 정치적 의제에 복무하는 인종주의적이고 도발적인 공격에 의해 모욕을 당한다. 우익 정치인들은 종종 젊은 이주자 후손들의 범죄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지만 이러한 현상은 많은 경우 다문화적 모자이크보다는 단일문화적 용광로를 진작하는 국가 이주 정책의 경직성과 실패를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좌절-공격 가설”(Dollar et al., 1939) 또한 사회적 소요의 심리적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열망이 좌절된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이주민들은 교외 지구의 불결한 주거환경, 불평등한 교육과 고용 기회 등 다양한 형태의 분리를 경험한다. 탈식민주의 이론은 예컨대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나라가 구 식민지들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높은 생활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주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빚고 있는” 식민주의의 “범죄적 장기 효과”, 이들 나라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Ponzanesi, 8)에 저항한다.

노마디즘에서 미그리튀드로

유목 이동은 먼 과거부터 아프리카인들의 주요한 역사적 “속성”이었다. 19세기 라이베리아 외교관 에드워드 W. 블라이든^{Edward W. Blyden}에 따르면 이주 왕래 경로는 늘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경로는 주로 아시아를 오가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몇몇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으며 이는 세계사에 장구한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은 끊임없이 교류해 왔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아프리카인들은 대서양과 홍해 사이를 지속적으로 오가고 있다. 또,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 헤로도토스와 호머의 시대처럼 아시아에서 수단의 중심부로 통하는 고속도로는 항상 열려 있다”(131).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의 불법 이주는 세계사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카메룬 역사학자 아킬레 음베크^{Achille Mbembe}는 아프리카인을 상대로 한 유럽의 봉쇄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륙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아프리카 내 국경개방 정책을 촉구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경과 비자에 대한 압박,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인종주의의 출현, 매우 뚜렷한 경제적 위기로 인한 우익 정당의 강화, 이 모든 것이 아프리카와 유럽의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 유럽이 국경을 폐쇄할 때 아프리카는 자신의 국경을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프리카는 방대한 순환의 공간이 될 때에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지정학적 재배치로부터 긍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12번째 문단).

새천년의 첫 십년이 끝나갈 무렵 미그리튀드 운동이 출현했다. 미그리튀드란 이주수용국과 세상을 향해 자신의 역사를 들려주기로 자청하고 나서는 이주자의 태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식민주의와 세계화의 고리를 강조하며 자본주의의 성장이 강제 이주와 계약 노동에 기반했음을 주장하는 국제적 정의 행동주의의 한 형태이다. 미그리튀드 운동은 17세기 노예제로부터 식민지 대도시에서의 강제 노동을 거쳐 오늘날의 이주 이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축출을 수반해 온 세계 자본주의의 미묘한 메커니즘을 통해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계화의 연속체를 추적한다.

케냐의 작가이자 나이로비, 런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온 인도계 활동가인 샤일자 파텔은 “네그리튀드^{Négritude}”와 “이주자의 도전적 태도^{migrant attitude}”를 조합한 “미그리튀드^{Migritude}”의 개념을 사용한다. 프랑스어 사용권 작가인 마르티니크의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와 세네갈의 레오폴드 세다르 상고르^{Leopold Sédar Senghor}가 옹호한 20세기 초의 네그리튀드 운동은 흑인임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텔은 미그리튀드를 “당당하고 격렬하면서도 서정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한 세대의 목소리”로 정의하고 이를 “외부자 지위의 ‘존엄성’을 재단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녀는 네그리튀드와 미그리튀드가 “짜뜰” 수 있는 문화적·정치적 토양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처음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이주자의 도전적 태도, 도전적 태도를 지닌 이주자라는 이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주자 세대를 담아낼 단어를 찾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이렇게 주장한다. “미그리튀드는 이주자의 문화를 찬양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출신국의 정체성과 수용국의 정체성 중에서 고르기를 거부하는, 또 차이를 숨기거나 지우려하기보다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이주민들이 접하는 고유한 정치적·문화적 공간을 담아냅니다”(모네가토^{Monegato}와의 인터뷰, 237). 이런 점에서 미그리튀드는 문화적 혼종성의 찬양이다.

많은 경우 “미그리튀드” 개념이 파텔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프랑스의 문화비평가 자크 셰브리에(Jacques Chevrier) 역시 『흑아프리카의 프랑스어 문학(Littérature francophones d'Afrique noire)(2007)』에서 이 개념을 사용한다. 실제로 이 개념을 고안한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한편으로 셰브리에에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담론의 형상에 의미를 제기하고 출신국 문화와 수용국 문화로부터 동시에 거리를 두는” 서아프리카 작가들의 프랑스어 저술들을 분류하는 데 이 개념을 사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파텔은 비판적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세계무대에서 이주자들이 처한 상황을 성찰하는 영어권 아프리카 작가들, 주로 케냐 작가들을 연구한다. 두 경우 모두 미그리튀드 작가들은 “유색의 이주자들이 권력의 심장부에서 공유하는 광범위한 고통”(Prashad iv)을 소리내어 말한다. 그들은 이주의 문제를 다른 무엇보다 정체성, 혼종성, 인종주의, 부정의의 주제와 관련지어 다루며 여행가방, 배, 여권, 음식, 음악 등의 상징들을 활용한다.

샤일자 파텔의 『미그리튀드』에 나타난 이주의 직물사

파텔은 케냐에서 자라 영국에서 수학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인도계 작가이자 활동가이다. 『미그리튀드』를 통해 그녀는 가족의 이야기를 여성들의 증언과 엮어 잘 알려지지 않은 제국주의, 착취, 폭력, 공간의 역사를 탐구하고 그것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와 같은 다양한 대륙의 이주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부각한다. 책을 저술한 동기와 관련해 저자는 이 책이 “[엄마의 모든 유산을 세공하고 삼감하며 [...] 국경을 구불구불 가로지르고 비자 단속을 피할] 것이며

“그것이 [나의] 의도”(62)라고 단언한다. 역사, 시, 자서전, 서한, 그림, 연극 공연이 혼합된 파텔의 걸작은 그녀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유산, 즉 어머니(제1부, 사리가 말할 때), 아버지, 교사, 손님을 주제로 한 네 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텔은 남아시아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따라가며 가족의 이주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그리튀드』 앞 부분에는 “The Making(이주자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시를 통해 저자는 이주 수용국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이주자들이 치르는 대가를 조명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묻지 않고도 정보를 흡수하지.
질문은 일과 비자, 목숨을 앗아갈 테니.
우리는 지켜보고 따라하지.
우리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다네. (33)

본 논문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미그리튀드』의 첫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부분은 하나의 연극 공연으로 여기서 파텔은 “어머니에게서 혼수감으로 물려받은 사리를 이용해 인도와 케냐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어떻게 여성의 신체에 실연되었는지 폭로”(모네가토와의 인터뷰, 237)한다. 『미그리튀드』 서문에서 비자이 프라샤드(Vijay Prashad)는 “대륙과 가족을 묶는” 사리의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상처를 묶는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함께 묶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도록 한다. 우리는 권력을 양보하거나 지갑을 열 마음이 없는 권력 엘리트의 화강암 덩어리에 묶여 있는 것만큼 자신의 신체와 욕망을 우리 사회 속으로 집어넣은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에 묶여 있다.(iv)

달리 말해, “식민적 기억상실”을 겪는 유럽 국가들은 제국주의의 토양 위에 그들이 축적한 부를 나누는 동시에 “이질적 집단들” 간의 “대안적 소통방식”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제국주의 과거를 인정할 것을 요구받는다.



사리의 디자인으로 주로 쓰이는 암비^{ambhi}

파텔은 제국주의와 이주의 맥락 속에서 비판적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사리의 역사를 분석하며 이 옷이 영국 제국주의가 인도에서 자행한 폭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남아시아인들이 우간다로부터 강제 추방되고 그들의 사리와 장신구를 영국과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이디 아민의 요원들에 의해 빼앗긴 사건을 언급한다. 그녀는 “어떻게 암비는 페이즐리^{paisley}가 되었나”를 설명하기 위해 서사의 직조 속에 직물사를 포함시킨다. 그녀는 “바빌론의 눈물로 시작”⁽⁴⁾된 암비(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리 옷감의 디자인)의 이주에 대해 이야기한다. 1813년 영국군 장교들은 다카의 모슬린^{mosuleen} 직조공들의 손가락을 절단했다. 모슬린이 영국의 직물보다 비싸고 스코틀랜드의 도시 페이즐리에서

스코틀랜드 직조공들이 솔에 암비 디자인을 모방해 짜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카슈미리^{Kashmiri}는 캐시미어^{cashmere}가 되었다. 모슬린^{mosuleen}은 모슬린^{muslin}이 되었다. 암비는 페이즐리가 되었다.”⁽⁶⁻⁷⁾ 모슬린의 원래 이름이었던 모슬린은 그것이 생산된 이라크 도시 모술^{Mosul}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역사가 제국주의적 착취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에서의 국경의 방랑자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은 저자 자신의 아버지 자마와 아프리카의 볼 지역,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의 여정을 담은 반자전적 서사이다. 소설의 출간을 격찬하며 유명한 탈식민 비평가 엘레케 보머^{Elleke Boehmer}는 이렇게 말한다. “소말리아 작가 하산^{Xasan}과 인도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제사가 들어 있는 첫 페이지부터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은 그것이 여러 대륙을 가로지르는 이야기임을 선언한다”⁽¹⁶⁷⁾. 소설은 소말리아가 영국령 소말리란드와 이탈리아령 소말리란드로 분열된 1930년대와 1940년대를 무대로 한다. 암바로는 아들 자마와 함께 생계를 위해 예멘의 아덴으로 이주한다. 아덴항은 영국 치하에서 남북을 오가는 부의 국제적 흐름이 지나가는 거점이었다. 그녀는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한 커피 공장에 취업하지만 하루 12시간을 일하며 착취당한다. 이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그 땀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저임금 여성”의 역경을 보여준다. 저자는 어쩌면 오늘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여성 착취를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적 착취 하에 놓인 여성들의 조건에 대해 소날리 페레라^{Sonali Perera}는 이렇게 주장한다.

오늘날의 역사적 순간에 “새로운 프롤레타리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주변부 여성 노동자들이다. 북반구 산업화된 국가들의 조직된 노동과 별개로 이 “탈산업” 시대의 보이지 않는 생산 주체는 자립경제가 아닌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탈식민 “개발도상” 국가에서 초과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다.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한 사업안내서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들 노동자들은 “값싸고” “유순하며” “손재주로 유명”하다. (3)

이런 점에서 나디파 모하메드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착취가 자본주의 생산의 엔진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엄마가 죽은 뒤 자마는 아버지를 찾아 여러 국가를 가로지르는 대장정에 오른다. 그가 머문 여러 장소들은 각 장의 제목을 구성하고 있다.

- 1935년 10월 예멘 아덴
- 1936년 3월 소말릴란드 하르게이사
- 1936년 9월 지부티 지부티 시
- 1936년 10월 에리트레아 아사브, 아스마라, 옴하제르
- 1936년 12월 에리트레아 옴하제르
- 1941년 1월 에리트레아 케렌
- 1941년 7월 에리트레아 게르셋
- 1946년 12월 수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 1947년 5월 엑소더스호
- 1947년 9월 웨일스 포트앨벗


여행 중에 소년은 에리트레아와 아비시니아에서 이탈리아 식민자들을 만난다. 그는 이탈리아군과 영국군의 전투를 목격한다. 그는 한 이탈리아 장교에 의해 짐승같은 취급을 받고 무솔리니의 군대에 징집되었으며 영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저자는 또 1884~1885년 베를린 회담을 통해 결정된 아프리카 분할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 회담을 통해 “영토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비시니아에 의해 분할”^{(BMB 64(국역 문명예 옮김, 중앙북스 2010, 228쪽))} 되었으며 “구멍이 송송 뚫린 허술한 국경선만 알던 떠돌이” 아프리카인들은 “이제 나라와 나라가 장벽으로 나뉘어 있음을 실감했다”^{(170-171(국역 353쪽, 번역 수정))}.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인들은 국경 통제나 신원 조회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다루어지며 때로는 투옥되거나 강제 추방되기도 한다.

수년에 걸쳐 영 제국이 무너지고 세계의 국경선이 바뀌었지만 자마는 어느 나라에 머물든 계속해서 불청객 신세로 남아 있다. 그의 운명은 그의 대륙이 처한 운명을 반영한다. 마침내 영국 여권을 손에 쥘 때까지 계속된 그의 다양한 여행을 통해 나디파 모하메드는 영국 제국주의의 과거가 남긴 다문화적 유산을 강조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주 흐름에 대해 성찰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부랑자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트럭 밑에 숨거나 보트에 실려 들어오고 점보제트기를 타고 와서 뛰어내린다.”^{(BMB 4(국역: 15쪽))} 그녀는 남의 떡이 더 크다고 기를 쓰고 생각하는 불법 이주자들을 가리킨다. 모하메드는 이렇게 덧붙인다.

무사와 그들은 뒤죽박죽의 생김새, 눈, 코, 입과 머릿결의 어색한 연금술, 다른 대륙에 속하는 피부색을 공유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는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많은 장소들의 인장이 찍힌 여권이였다. 하지만 그들의 용모에는 북적거리며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이들의 변종인 옛스런 무언가가 있었다. (177)

“북적거리며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이들”이라는 구절로 그녀는 과거의 아프리카 유목부족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주정병이 에다 부랑자인 소말리아 남자 무사가 보여주듯 오늘날의 많은 유목민들은 비극적 운명을 겪는다. 그는 “실패한 이주의 표본”이었다. 자마는 그를 보며 “자신의 인생이 무사의 끔찍한 전철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장소를 탐험했지만 결국은 그곳에 이상적인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177[국역 367-368쪽]) 이 인용문은 오늘날의 이주자들이 겪는 운명, 대부분 아프리카 이주자들로 전쟁이나 기근으로 찢겨진 나라를 떠나 더 좋은 곳을 찾아 나서지만 결국 어떤 곳도 찾을 수 없는 이들의 운명을 요약한다.

결 론

네그리튀드의 미그리튀드 후예들인 샤일자 파렐과 나디파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인의 이주라는 문제를 성찰하고 각자의 문학작품을 통해 식민주의와 세계화의 상호관련성을 부각한다. 나는 그들이 “이주의 문화적 상상”이 지닌 가능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탐구하는지 설명함으로써 화해와 치유에 바탕한 “이주자들과 비이주자들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이주 수용국 내에서 살아가는 “이질적 집단들” 간의 “대안적 소통 방식”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자 했다. 그들은 이주자들과 수용국 사이의 관계, 또 이주자들과 고국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그들 대 우리’가 ‘그들과 우리’로 희망적으로 대체되는 세상에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유동적 정체성이 탄생하길 고대한다. 

이주, 그리고 정치적 행위로서의 문학 번역과 수용

크리스티나 비에슈첵 Krystyna Wieszczyk

볼로냐 대학교 University of Bologna

/ 이그나티아눔 아카데미 Ignatianum Academy in Cracow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발표된 원고 “The Migrant Heiresses of Négritude: Illustrations from Shailja Patel’s Migrant and Nadifa Mohamed’s Black Mamba Boy”를 저자의 동의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소개>

펠라 베나베드 (맛지모크타르-안나바대학교)

펠라 베나베드 Fella Benabed는 맛지모크타르-안나바대학교 Badji Mokhtar-Annaba University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영어권 세계문학에 대한 탈식민적, 생태학적, 서사적, 그리고 의료적 접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 루이빌 대학 소재 현대미국문학연구소 연구그룹에, 2021년에는 컬럼비아 대학에 폴브라이트 방문학자로 참여했습니다. 베나베드는 이주를 다룬 논문들을 다음과 같이 다수 발표하였습니다.

“Celebration/Subversion of French Assimilation: A Contrapuntal Analysis of Zebda’s Art,” *Rupkatha Journal on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Humanities*; “Marine Heterotopia and Odyssean Nomadism in Malika Mokeddem’s *N’zi*”,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Liquid Modernity and Fluid Identity in Caryl Phillips’s *Counter Travelogue The Atlantic Sound*”, *The Lincoln Humanities Journal: Travel Narratives and Life Writing*. 또한 남부 덴마크 대학에서 “Migration and Dementia in David Chariandy’s *Soucouyant: A Novel of Forgetting*”을, 그리고 베를린의 마르크 블로흐센터에서 “Bridging the Self/Other Divide: A Postcolonial Reflection on ‘Beur Music’” 라는 제목의 글을 각각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폴란드 디아스포라에 초점을 둔다. 폴란드·영국·프랑스의 미출간 문서고 자료를 포함한 풍부한 1차 자료를 근거로 본 논문은 폴란드인의 이주가 가진 정치적 의의와 이주자의 문화 활동, 특히 문학 번역과 보급의 문제를 탐구한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폴란드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선진물이 주장하는 것처럼 폴란드의 해방이 아니라 소련에 의한 점령이었다. 많은 공무원, 군인, 실항민, 최후의 순간 폴란드를 빠져나온 난민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서구에 남기로 결정했다. 많은 경우 이는 그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저항의 몸짓이자 이들이 목도한 동구의 공격과 서구의 공모를 증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주자 중에는 보다 자유로운 곳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한 상당수 지식인들이 포함되었다. 많은 이들은 스스로를